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8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1년 1월 18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유성투쟁 승리했습니다!



유성지회 10년만에 타결!

유성지회의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이 10년만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유성지회는 1월 18일 조인식을 진행하고 10년의 투쟁을 마무리한다. 지회는 작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노조파괴와 관련된 현안문제 및 10년간의 임단협 의견접근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87.7% 찬성율로 의견접근안을 가결시켰다.

유성지회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2011~2020년 임금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철거 ▲재발방지 약속 ▲쌍방 유감표명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노조간 차별금지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손배 취하 ▲징계 관련 사항 ▲노동조합 편의제공 ▲한광호 열사 장례 관련 비용 및 위로금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위한 실행팀 가동 ▲조합원 트라우마 심리치유사업 지원 ▲위로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지회 단체협약 ▲금속노조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합의안 등이다.

우리 모두의 연대로 만들어냈습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2011년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 중 사측이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깡패를 투입하며 시작됐다. 투쟁과정 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는 원청인 현대차, 노동부, 경찰, 검찰, 국정원, 청와대까지 개입했다.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합작 범죄였다.

당연히 쉽사리 끝나지 않을 투쟁이었고, 10년을 싸웠다. 현장의 파업 투쟁, 천안과 청주를 오가며 노동부, 검찰, 법원을 상대로 한 투쟁, 현대차 본사 투쟁 등 안해본 투쟁이 없었다. 이 투쟁을 가능하게 만든 힘은 지역 동지들의 연대의 힘이었다. 때로는 투쟁기금으로, 때로는 대규모 집회 대오로 유성 투쟁에 항상 든든한 뒷받침이 됐다. 그 힘으로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10년을 싸울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노조파괴를 끝장내고 승리했다. 단결하고 연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